

서울국제금융컨퍼런스 주요내용 보고

(2024. 7. 7. 금융중심지육성2팀 이경미 매니저)

1 행사개요

- 행사명: 세계경제연구원-신한은행 서울국제금융컨퍼런스
- 주 제: 글로벌 지경학적 분열과 산업 대전환을 넘어: 아시아의 새로운 금융허브, 서울의 비전
- 일 시: 2024. 6. 28.(금) 9:00~17:00
- 장 소: 서울 롯데호텔
- 주 최: (재)세계경제연구원*, 신한은행
 - * '93년 설립 이후, 정치, 경제, 금융 등 다양한 분야의 세계적 석학 및 글로벌 리더들을 초청하여 다양한 포럼과 국제컨퍼런스를 주관하며 글로벌 경제금융환경과 국제 외교 안보 질서 변화에 관한 고견을 청취하고 논의하는 다양한 플랫폼의 기회를 마련하는 한편, 국제적 석학들과 함께 연구 활동을 진행
- 후 원: 서울특별시, 한국은행,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국민연금공단, 전국은행연합회
- 주요내용
 - (Special Roundtable) 세계 5대 허브도시, 서울: 비전과 로드맵
 - (Session 1) 글로벌 지경학적 도전과 아시아 지역 발전 기회
 - (Session 2) AI/디지털 기술혁명과 금융 서비스 산업혁신
 - (Session 3) 지속가능성장 및 산업 전환 촉진과 금융의 역할

※ 세션별 연사는 [주요내용] 참조
- 주요참석자
 - (특별축사) 오세훈 서울시장
 - (축사) 성태윤 대한민국 대통령비서실 정책실장, 김주현 금융위원회 위원장, 김태현 국민연금공단 이사장
 - (컨퍼런스 기조연설) Anne Krueger 前 IMF 및 세계은행 수석부총재, Michael Spence 노벨경제학상 수상자 등

2 주요내용

□ (Special Roundtable) 세계 5대 허브도시, 서울: 비전과 로드맵

(좌장) 전광우 세계경제연구원 이사장

헨리 페르난데즈(Henry Fernandez) MSCI Chairman & CEO

진승호 한국투자공사 사장

최훈 前 대한민국 주 싱가포르대사/前 금융위원회 상임위원

산지브 미즈라(Sanjiv Misra) Chairman, Clifford Capital Holdings, Asia-Pacific Advisory Board of Apollo Asset Management/Fmr.Head, Citigroup Asia-Pacific

와이쿵 섉(Wai-Kwong Seck) Fmr. CFO, Singapore Exchange/CEO, Eastspring Investments Group, GIC

마이크 와들(Mike Wardle) CEO, The Z/Yen Group of Companies(국제 금융허브 평가기관)

안효준 前 국민연금공단 기금운용본부 본부장(CIO), 기금이사/삼정 KPMG 고문

- 양극화, 기후변화, 지정학적 리스크 확대, AI 혁명 및 디지털 기술혁신에 따른 산업변화는 우리에게 새로운 도전이자 기회임. 위기를 기회로 극복하고 지속가능하고 복원력 강한 대한민국 경제 구축을 위해 지속적인 금융 규제개선, 자본시장 선진화 및 금융혁신을 통한 글로벌 경쟁력 제고 필요
- 서울 금융허브 발전 현황
 - 국제금융센터지수 상승('07년 43위 → '24년 10위)
 - 미래부상 가능성이 가장 높은 도시 1위
 - 외국인투자 증가(2023년 서울의 FDI 전년 대비 30% 이상 성장)
 - 서울비전 2030펀드 조성('23년부터 4년간 5조 원 규모로 조성하여 핀테크 및 혁신기업이 글로벌 유니콘 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투자)
 - 2023년~2027년 총 593억 5700만원을 투입해 디지털금융지원센터 설립, 핀테크 기업육성, 금융중심지 브랜딩 홍보 강화, 영여친화 환경조성 등 외국인 정주여건 개선에 나섬
- 서울금융중심지 주요 비전
 - '디지털국제금융중심지 여의도'라는 비전 아래 GFCI 세계 5위권 진입 목표
 - 바이오산업 AI, 로봇 등 서울이 강점을 가진 산업과 핀테크 융합을 통한 서울의 금융산업 경쟁력 강화

○ 글로벌 금융허브로의 발전방안

- (글로벌 투자자-기업 연결 플랫폼 제공) 서울시가 글로벌 투자자와 지역 기업을 한 자리에 연결하는 회의 등을 조직하여 혁신적인 아이디어 및 투자를 유치할 수 있는 플랫폼 제공 필요. 서울에는 이미 BlackRock, Goldman Sachs 등의 대형 금융기관이 존재
- (우수 인재유치 유치) 금융중심지로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는 우수인재 유치가 중요하며, 생활인프라(의료 및 교육서비스) 개선을 통한 외국인 인재의 정착지원 필요
 - ① (의료서비스 개선) 영어구사 의료인 배치, 주요 지역에 외국인 전용 의료클리닉 개선을 통한 외국인 의료접근성 개선 필요
 - ② (교육인프라 확충) 외국인 학생을 위한 국제학교 시설 확충, 국제학교에 대한 접근성을 높여 외국인 가족들이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할 필요

□ (Session 1) 글로벌 지경학적 도전과 아시아 지역 발전 기회

(좌 장) 신성환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 위원/前 한국금융연구원 원장

(기조연설) 케네스 로고프(Kenneth Rogoff) 하버드대 석좌교수/前 IMF Chief Economist
에이스케 사카키바라(Eisuke Sakakibara) 前 일본 대장성 차관/President, IIES

(패 널) 김정식 연세대 명예교수/前 한국사회과학협의회 회장

최병일 한국고등교육재단 사무총장/이화여대 국제대학원 명예교수
/前 한국경제연구원 원장

- (글로벌 6대 주요 이슈) 미-중 무역 전쟁, 러-우크라이나 전쟁, 이스라엘-하마스 사태, 미국의 글로벌 리더십 약화, 환경문제해결 노력증가 및 코로나19 팬데믹에 따른 세계 경제의 불확실성이 증가함에 따라 각국의 정책 결정과 미래 예측이 어려워짐
- 미국 보호무역주의 정책에 따른 WTO의 분쟁 해결시스템 약화, WTO 내 다자간 무역협상 지연 등에 따라, 한국의 수출주도형 경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음
- 코로나 팬데믹 이후 세계 경제의 변화와 불확실성이 증가함에 따라 우리는 세계경제의 전환점에 서있음
 - (글로벌 공급망 혼란) 생산지연, 물류/운송문제 등에 따른 상품 및 서비스 가격상승, 특정 국가/지역에 생산을 의존하는 글로벌 의존도 문제
 - (소비자 행동변화) 전자상거래 급성장, 비대면 서비스 증가 등

- (재정지출증가) 경제회복을 위한 대규모 재정지출로 인한 국가부채 증가
- (통화정책전환) 경제회복과 인플레이션 사이의 균형을 위한 긴축통화정책
- 코로나 팬데믹은 전자상거래 급성장 등 디지털 경제를 부상시킴에 따라 IT 강국인 한국은 디지털 경제의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짐. 이와 동시에 사이버 보안, 개인정보 보호와 같은 새로운 도전에도 직면할 것
- 중국의 경제성장 둔화는 세계 경제에 큰 영향을 미침
 - (부동산 시장 침체) 부동산 시장은 중국 경제에서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지만, 과잉 공급과 가격 하락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음
 - (경제정책변화) 중국 정부는 질적성장을 목표로 환경규제 강화, 기술자립, 부패척결 등의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으며, 이는 단기적으로 경제 성장률을 둔화시킬 수 있음
 - (국제무역갈등) 미-중 무역전쟁은 중국의 수출 주도형 경제에 부담을 주고 있음

□ (Session 2) AI/디지털 기술혁명과 금융 서비스 산업혁신

(좌 장) 헨니 센더(Henny Sender) BlackRock 고문/前 파이낸셜타임스 수석칼럼니스트
 (기조연설) 브라이언 브룩스(Brian Brooks) Chairman & CEO, Meridian Capital Group
 /前 미국 통화감독청장/CEO, Binance USA
 피유시 굽타(Piyush Gupta) DBS 그룹 CEO
 토니 우드(Tony Wood) Lead Partner Banking and Capital Markets, Asia Pacific, Deloitte
 (패 널) 민세진 금융위원회 혁신금융심사위원회 민간위원/동국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레베카 추아(Rebecca Chua) Founder & Managing Partner, Premia Partners
 임은택 신한은행 AI UNIT장 본부장

- (AI의 경제적 잠재력) 제조업, 금융, 의료 등 광범위한 영역에서 생산성 제고 및 혁신 촉진가능. 신산업에서 경쟁력을 가진 국가는 높은 경제 성장률을 경험할 수 있음
 - 제조업의 스마트 팩토리를 통한 효율성 극대화, 금융업의 리스크관리 및 투자분석 개선, 의료업의 AI 의료 진단 및 치료계획 수립지원 등
 - 기업은 AI를 활용해 운영비용 절감 및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 창출 가능

- (AI의 확산을 고려한 정책 필요) 기술 인프라 구축, AI분야 교육 및 인재양성, R&D 지원 등
 - 고성능 컴퓨팅 인프라와 데이터 저장소가 필요하며 정부는 이러한 인프라 구축과 유지에 투자할 필요
 - AI 기술 인재 양성을 위한 교육과정을 확대하고 직업훈련 프로그램을 통해 현업에 있는 사람들도 AI 기술을 습득할 수 있도록 지원할 필요
 - 정부는 AI 관련 R&D 프로젝트에 자금지원, 민간기업과 연구기관 간의 협력을 촉진할 필요
 - AI 기술 활용에 따른 데이터 프라이버시, 윤리적 AI 사용* 등과 관련된 규제 및 가이드라인 구축 필요
- * AI 모델이 데이터 편향으로 인해 특정 집단에 불리하게 작용하는 것을 방지하게 위해 다양한 통계를 반영하고 알고리즘의 편향성을 지속적으로 점검할 필요(인종, 성별, 나이, 종교 등과 같은 속성)
- AI 금융 분야의 활용 및 전망
 - AI의 가장 효과적인 분야가 금융 부문임, AI를 통해 고객 서비스 혁신이 가능
 - 신용평가 분야에서의 AI 도입, 고객 신용관리도 AI로 관리
 - AI가 먼저 작업을 실행하고 사람들이 다시 작업하는 프로세스가 만들어질 것임
- Developmnet Bank of Singapore(DBS)의 기술 혁신과 디지털화 전략
 - 많은 은행들이 디지털화를 고객대면 프론트엔드에만 집중하여 접근, 전체적으로 재접근 필요
 - 고객 중심의 아이디어와 고객 가치 제안을 재정의하여 완전한 변화를 이룰 수 있음
 - 고객 경험과 가치 제안을 중시하는 서비스 문화 구축
- DBS의 인재 전략
 - ① 필요인력 채용 ②기존인력 재교육(실습과 교육의 기회를 많이 제공해야 함, 전문적인 환경에서의 신기술에 대한 공포감을 낮춰야 함, 리스크를 감수하고 기업가 정신을 키워야 함)
- DBS 기술과 비즈니스의 융합
 - 기술이 곧 비즈니스라는 확신을 가져야 함. 즉, 기술 없이는 비즈니스가 없음. 기술은 더 이상 뒤에서 조정하는 것이 아닌, 공동 운전자가 되어야 함
 - “Two in a box” 은행의 모든 비즈니스, 32개의 플랫폼에서 기술과 비즈니스 담당자가 공동 리더십을 가지고 공유 핵심성과지표(KPI, Key Performance Indicators)와 목표를 설정, 이를 위해 기술 담당자에게는 비즈니스 교육을, 비즈니스 담당자에게는 기술교육을 진행
 - 진정으로 변혁을 원한다면 데이터가 매우 중요함. 데이터 레이크(Data Lake)를 생성하고,

AI를 위한 데이터 모델을 만들어야 하지만, 대부분의 회사가 실패하는 중요한 점은 데이터를 보유하고 있지 않다는 것

○ AI의 잠재적 부정적 영향과 윤리적 고려사항

- 환각(Hallucination), 딥페이크(Deepfake), AI의 오용 가능성
- 데이터와 AI는 목적이 있어야 하고, 설명 가능 해야 함.
- 의도치 않은 결과를 방지하기 위해 많은 보호 장치 마련

○ 한국의 혁신금융

- 금융혁신과 규제의 조화로운 역할을 이해할 필요, 소비자 보호와 금융혁신의 양립성
- 샌드박스를 통해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된 회사가 별도의 금융 라이선스 없이 지정된 범위 내에서 서비스 운영 가능(2+2)
- 금융 규제샌드박스의 효과: 2022년 6월말 135개의 혁신금융회사가 총 1,928명 고용, 39개의 핀테크 회사가 벤처캐피털 및 기타 출처에서 약 3억 8,500만 달러의 신규 투자 유치
- 금융 규제가 우리 산업에서 하는 미묘한 균형을 인식하는 것이 중요. 강력한 금융 규제가 금융 부문의 건전한 발전을 보장하고 전체 경제의 안정을 유지하는데 중요, 반면 이러한 규제는 기술혁신의 채택에 있어 상당한 장애물

□ (Session 3) 지속가능 성장 및 산업전환 촉진과 금융의 역할

(좌 장) **홍종호** 서울대 환경대학원 교수/前 서울대 환경대학원 학장

(기조연설) **팀 아담스(Tim Adams)** 국제금융협회(IIF) 회장

메간 오설리반(Meghan O'Sullivan) 석좌교수 겸 디렉터, Harvard Kennedy School
/국가안보 부보좌관

(패 널) **김병철** 금융감독원 부원장보

소냐 깁스(Sonia Gibbs) 국제금융협회(IIF) Managing Director and Head of Sustainable Finance
필립 반 후프(Philippe Van Hoof) 주한유럽상의(ECCK) 회장/ING 은행 한국 대표
김혜성 김앤장 변호사 및 Governance & Sustainability 그룹장

니콜라 위어(Nicola Weir) Partner, Internal Climate and Sustainability Leader, Deloitte
조정훈 신한은행 ESG본부 본부장

- 지속가능성과 관련된 전환, 특히 기존의 화석연료 중심의 에너지 공급체계에서 신재생 에너지 공급체계로의 전환은 다른 전환과 깊이 얽혀있음
 - (국제협력에서 대국 간 경쟁으로의 전환) 대국 간의 경쟁이 심화 되면서 글로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국제협력이 어려워짐. 가령, UN에서 미국, 러시아, 중국의 대립으로 인해 협력이 어려워짐. 에너지 전환은 ‘공급과 수요의 비동기화’*로 인해 ‘대국 간 경쟁’**을 심화시키고 있음
 - * 공급과 수요의 비동기화란 에너지의 공급(생산)과 수요(소비)가 불일치하는 상황을 의미. 가령, 재생에너지의 생산은 기후에 따라 변동성이 크기 때문에 일정한 공급이 어려울 수 있는 반면, 에너지 수요는 일정하거나 증가할 수 있음. 이는 에너지 시장에서 공급이 수요를 불충족하는 상황을 초래
 - ** 에너지 공급-수요의 비동기화는 국제 에너지 시장의 불안정성을 초래해 에너지를 안정적으로 확보하려는 국가간 경쟁을 심화시킴. 가령, 라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해 유럽에 대한 러시아의 가스 공급이 불안정해졌고, 이는 유럽의 에너지 위기를 초래하면서 유럽은 다른 에너지 공급원을 찾기 위해 노력해야 했고, 이는 글로벌 에너지 시장에서의 경쟁을 심화시킴
 - (통합된 글로벌 경제에서 분열된 글로벌 경제로의 전환) ① 정치/경제적 갈등으로 인한 글로벌 공급망의 분열, ② 중국의 역할과 에너지 안보 우려, ③ 각국의 에너지 자급자족 노력강화와 무역감소
 - ① 정치/경제적 갈등으로 인한 글로벌 공급망의 분열은 재생에너지 기술과 자원(태양광패널, 리튬배터리 등)의 공급망을 비효율적으로 만들. 각국이 독립적으로 재생에너지 공급망을 구축해 에너지 자급자족을 강화하려는 노력은 중복투자와 비효율성을 초래*
 - * 가령, 여러 국가가 동시에 태양광 패널제조시설을 건설하거나, 리튬채굴과 같은 자원 확보에 경쟁적으로 투자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음. 이는 글로벌 차원에서 볼 때 불필요한 중복투자로 이어지며, 그 결과 재생에너지 전환의 비용이 증가하고 전환 속도는 느려짐
 - ② 현재 중국은 태양광 패널, 배터리 등의 재생에너지 기술과 자원에서 주도적 역할을 하고 있음. 이는 중국의 에너지 의존도가 높아질 경우, 정치/경제적 갈등이 발생할 경우, 에너지 안보의 위협이 될 수 있다고 인식되어 자국 내 독립적인 재생에너지 공급망 구축을 촉진함
 - ③ 에너지 전환은 자국 내 에너지 자급자족을 강화하고, 글로벌 에너지 무역을 감소시키는 경향이 있음
 - (Convergence에서 Divergence로의 전환) 선진국-개발도상국 간 경제적, 사회적 격차가 좁혀지던 흐름이 다시 벌어지기 시작하는 현상
 - ① Covergence 발생요인
 - 글로벌화(자유무역과 국제협력의 증가로 개도국은 선진국의 시장에 접근가능)
 - 기술이전(선진국에서 개발된 기술이 개도국으로 이전되며 생산성/효율성 증가)

- 외국인 직접 투자(선진국 기업들이 개도국에 투자하여 일자리 창출과 경제성장을 촉진)

② Divergence 발생요인

- 코로나19 팬데믹(취약한 경제구조와 보건시스템으로 인해 선진국-개도국 간 팬데믹으로 인한 경제회복 속도의 격차는 더욱 벌어짐)
- 개도국의 부채위기(팬데믹 대응을 위한 대규모 재정지출로 개도국의 국가부채 증대와 고금리 및 환율변동은 부채상환 부담을 가중시켜 경제회복을 위한 투자를 감소시킴)
- 개도국의 에너지 위기(글로벌 에너지 가격상승으로 인한 경제적 압박과 재생에너지 전환을 위한 초기 투자 비용을 감당하기 어려운 것이 개도국의 에너지 접근성을 제한하고 경제 성장을 저해함)

○ 지속 가능한 금융 시장의 기회와 리스크

- 신재생 에너지 투자가 화석연료 투자를 초과했지만, 여전히 더 많은 투자가 필요함. 금융 부문은 지속 가능한 프로젝트에 대한 자금 조달을 촉진하여 재생에너지, 전기차, 지속 가능한 농업 등의 투자를 늘릴 수 있음. 전기차, 지속가능한 농업, 녹색금융시장이 경제성장과 일자리 창출에 큰 기여를 할 것
- (ESG 가치와 전환 투자) 재생에너지로의 전환을 위해 많은 자금이 필요하며, 정부는 높은 비용 부담을 지게 됨. 많은 국가들이 기후 공약에서 후퇴하고 있으며, 이는 에너지 믹스에서 화석 연료가 계속 필요함을 의미함
- (전환금융의 역할) 전통금융과 녹색금융을 연결하여 에너지 믹스를 변혁하는 역할을 할 필요. 금융기관은 전환금융을 통해 전통적인 회색자산을 녹색자산으로 전환하도록 지원해야 함. 사회적 긴장을 줄이기 위해 성장과 일자리를 지원하는 전환 금융 모델을 개발할 필요
- 정책과 규제의 국제적 조정이 필요하며, 금융 부문과 실제 경제, 정책 입안자, 규제 기관, 시민 사회 간의 협력이 중요함.
- (국내 금융사의 ESG 공급 목표) 국내금융회사가 2030년까지 총 560조 원의 ESG 금융 공급 목표를 가지고 있음. 이는 기업들이 사용하는 총 여신의 약 3분의 1에 해당하는 규모 (국내 금융 구조는 채권보다는 여신 중심.)
- (ESG 금융의 현실과 문제점) 목표 달성의 현실성에 대한 의문, ESG 기준의 명확성 부족,
- (한국형 ESG 금융 지원 방안) 녹색 대출에 대한 명확한 가이드 마련을 통한 금융기관의 리스크관리 및 투명성확보 제고, 중소기업을 위한 ESG 컨설팅 체계 운영을 통한

중속기업의 지속가능성 향상 도모, 전환금융 지원체계 운영을 통한 금융기관의 포트폴리오 다양화, 신규투자기회창출 등 도모, 데이터 확보 및 공유 체계 구축의 중요성

- (ESG 금융 공급 목표와 금융산업) 금융기관들이 ESG 금융을 통해 지속 가능한 경제 성장을 지원하며, 이는 금융산업의 새로운 시장 창출과 관련이 있음. ESG 금융 공급 목표 달성을 위해 새로운 금융 상품과 서비스 개발이 필요

참고 1

행사 포스터

2024년 6월 28일 금요일		
09:00 - 10:00	개회식	개회사 전광우 세계경제연구원 이사장
		특별축사 오세훈 서울시장
		축사 성태윤 대한민국 대통령비서실 정책실장 김주현 금융위원회 위원장 김태현 국민연금공단 이사장
		컨퍼런스 기조연설 앤 크루거(Anne Krueger) 스탠퍼드대 석좌교수/前 IMF 및 세계은행 수석부총재, 전미경제학회 회장 마이클 스펜스(Michael Spence) 노벨경제학상 수상자/후버연구소 선임연구위원/IGE 명예이사장
10:10 - 11:30	Special Roundtable: 세계 5대 허브도시, 서울: 비전과 로드맵	작장 전광우 세계경제연구원 이사장 헨리 페르난데즈(Henry Fernandez) MSCI Chairman & CEO 진승호 한국투자공사 사장 최훈 前 대한민국 주 싱가포르대사/前 금융위원회 상임위원 산지브 미즈라(Sanjiv Misra) Chairman, Clifford Capital Holdings, Asia-Pacific Advisory Board of Apollo Asset Management/Fmr. Head, Citigroup Asia-Pacific 와이킹 섹(Wai-Kwong Seck) Fmr. CFO, Singapore Exchange/CEO, Eastspring Investments Group, GIC 마이크 와들(Mike Wardle) CEO, The Z/Yen Group of Companies(국제 금융허브 평가기관) 안효준 前 국민연금공단 기금운용본부 본부장(CIO), 기금이사/상정 KPMG 고문
11:40 - 12:40	세션 1 글로벌 지경학적 도전과 아시아 지역 발전기회	작장 신성환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 위원 /前 한국금융연구원 원장 기조연설 케네스 로고프(Kenneth Rogoff) 하버드대 석좌교수/前 IMF Chief Economist 에이스케 사카키바라(Eisuke Sakakibara) 前 일본 대장성 차관/President, IIES 패널 김정식 연세대 명예교수/前 한국사회과학협의회 회장 최병일 한국고등교육재단 사무총장/이화여대 국제대학원 명예교수/前 한국경제연구원 원장
12:40 - 13:50	오찬 특별 연설	로버트 머튼(Robert C. Merton) 노벨경제학상 수상자/MIT 석좌교수/IGE 명예이사장
14:00 - 15:20	세션 2 AI/디지털 기술 혁명과 금융 서비스 산업 혁신	작장 헤니 셴더(Henny Sender) BlackRock 고문/前 파인애플타임스 수석칼럼니스트 기조연설 브라이언 브룩스(Brian Brooks) Chairman & CEO, Meridian Capital Group/前 미국 통화감 독청장/CEO, Binance USA 피유시 굽타(Piyush Gupta) DBS 그룹 CEO 토니 우드(Tony Wood) Lead Partner Banking and Capital Markets, Asia Pacific, Deloitte 패널 민세진 금융위원회 혁신금융심사위원회 민간위원/동국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레베카 추아(Rebecca Chua) Founder & Managing Partner, Premia Partners 임은택 신한은행 AI UNIT장 본부장
15:30 - 17:00	세션 3 지속가능 성장 및 산업전환 촉진과 금융의 역할	작장 홍종호 서울대 환경대학원 교수/前 서울대 환경대학원 학장 기조연설 팀 아담스(Tim Adams) 국제금융협회(IIF) 회장 메간 오설리반(Meghan O'Sullivan) 석좌교수 겸 디렉터, Harvard Kennedy School /국가안보 부부차관 패널 김병철 금융감독원 부원장보 소냐 깁스(Sonja Gibbs) 국제금융협회(IIF) Managing Director and Head of Sustainable Finance 필립 반 후프(Philippe Van Hoof) 주한유럽상의(ECCK) 회장/ING 은행 한국 대표 김혜성 김앤장 변호사 및 Governance & Sustainability 그룹장 니콜라 위어(Nicola Weir) Partner, Internal Climate and Sustainability Leader, Deloitte 조정훈 신한은행 ESG본부 본부장